

창업강좌 유형에 따른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비교 연구

김용태*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국문 요약

최근 대학 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등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창업교과 및 비교과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수강생의 참여도 및 교육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과 정보 전달 중심의 일반적 창업 강좌와 창업실습 등을 중심으로 한 체험형 창업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체험중심의 창업교육(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 서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해외 선진국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교육을 확산함으로써 창업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청년창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주도하에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경우 잠재적 창업자(nascent entrepreneur) 발굴을 위한 창업교육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창업교육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자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 확대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는 대학 내 창업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을 수립하고, 세부 실행전략으로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일방적인 정보 전달위주의 창업교육이 아니라 실제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창업 동아리 또는 실제 창업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체험형(experiential) 창업강좌를 확대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창업교육의 목적과 효율적인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체험형 강좌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대학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체험형 창업강좌와 일반적인 창업강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창업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해 보고, 학습자의 창업동기와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해 분석을 통해 창업 친화적인 체험형 창업강좌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학 내 체험형 창업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창업교육 교수법에 대한 활발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교육

2.1.1 창업교육의 형태

일반적인 창업교육의 형태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그리고 멘토링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주요 특징 및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교육은 기업가 정신 함양, 비즈니스 모델, 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지원 정책 등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태도와 세부적인 스킬, 이론적 지식 그리고 창업 관련 정보를 강의형태로 제공해 주며, 다수의 교수 또는 창업 교육 전문가가 주제별로 분담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강사가 강의 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의 능력이 부실한 경우에는 교육성고가 떨어진 다.

실습교육은 ‘청년인턴제’와 같은 현장실습과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형태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현장실습은 교육생들이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사업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체험함으로써 현장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는 교육이다. 이러한 현장실습교육 형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실시하는 교육이다. 모의창업 시뮬레이션 교육은 예비창업자들이 팀을 이루어 팀별로 지급되는 창업 종자금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팀원 중에 한명의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경험해보는 팀 단위 프로젝트이다. 하지만 본인의 창업 아이템이 아닐 경우 참여도가 떨어지고, 팀원이 많을 경우 무임승차하는 팀원이 발생하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종자금 사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 멘토링 교육은 선배 창업자가 교육생들의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창업 성공률 제고를 도와주고, 멘토와 멘티 사이에 네트워크 증진에 기여한다. 멘토링 교육은 1:1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명의 멘토에 다수의 멘티가 팀을 이루는 팀 멘토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팀 멘토링을 통해 팀원들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서로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창업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되지만 현장실습 인프라와 멘토 네트워크가 갖추어지지 않는 대학교의 창업 교육은 대부분 이론교육 중심의 창업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멘토링 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론교육과 병행한 체험형교육 또는 멘토링 교육이 아닌 이론교육 이후 잠깐동안 멘토링 교육을 하거나 멘토링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2.1.2. 국내 창업교육의 문제점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창업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지자체, 기관, 학교 등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대학을 비롯하여 민간, 지방자치 단체들을 위주로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창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대학과 대학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비즈니스 마인드와 경영, 경제적 사고를 길러주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최종인과 양영석(2012)은 대학원의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학부의 창업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해외대학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프로세스 중심의 교육을 중심으로 알고리즘 기반의 창업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시장의 틀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사업화(TEC)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산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질 좋은 창업교육’을 위하여 기존의 경영이론 중심의 교육과 성공사례 중심의 옴니버스 강의가 아닌 프로세스를 통한 ‘자기주도적 창업실습훈련’이 필요하면 사업현장의 정보와 노하우를 창업자들과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창업과정에서의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별로 자기주도 창업실습 교육이 가능하도록 워크시트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코치진과 선배기업가로 구성된 멘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황보운과 양영석(2012)는 창업교육의 문제점으로 창업교육시스템의 미흡을 지적하였다. 창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검증된 창업교육 콘텐츠와 창업교육 강사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사와 교수, 코치와 교육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상수 외(2013)는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를 체계적인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제해결 중심의 실용적인 창업교육 콘텐츠, 능력을 갖춘 전문강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창업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은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으로 보았으며,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국내에는 부족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시스템’의 Prototype을 개발하여 창업교육 콘텐츠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조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현재 국내의 창업교육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창업교육 콘텐츠 부족과 체험적 창업교육 활성화, 창업 멘토와 같이 창업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창업교육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Skill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교육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그에 대해 지원해주는 창업교육

콘텐츠의 필요성도 제기 되었다.

2.2. 창업의지

심리학의 연구 분야에서 어떠한 계획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증명된 요인은 바로 의지(intention)이다. 창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획된 행동(planned behavior)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계획된 행동인 창업을 예측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은 바로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를 측정하는 것이다.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쳐 창업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개인의 창업의사결정과 행동의 선행요인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즉 창업의지가 발생되어야 한다. 창업의지는 창업 행위의 의도적 태도를 의미하며, 창업이라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또, 의지와 행동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창업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의지는 개인의 태도와 경험을 창업이라는 행동으로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Krueger & Carsrud, 1993)

창업의지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이다. Shapero(1982)는 창업의지를 창업 이벤트모델(Entrepreneurial Event Model, EE)을 통해서 나타내었는데, 즉 실적이나 이민 등과 같은 개인의 중요한 생애 이벤트(life event)는 개인의 선택을 요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개인은 창업에 대해 고려하게 되고 이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는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창업은 계획된 행동이라 볼 수 있으므로 창업의지에 관한 이해는 창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전제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중요성에 따라 창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의 증대로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이론적, 실증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져온 일반적인 이론 전달중심의 창업교육과 최근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체험중심의 창업교육(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수강생의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현

재 표본집단 데이터에 대한 실증연구 분석단계이며 추후 연구를 통해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수강생과 일반 창업교육 수강생간의 창업에 대한 동기,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 등의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체험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의 다양화 및 창업교육 효과 측정 등 관련 연구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Choi, J. I., & Yang, Y. S.(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25-134
- Hwangbo, Y., & Yang, Y. S.(2012). The Study of foundation that Gradu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7(1), 113-123
- Krueger, N. F., & Carsrud, A. L.(1993). Entrepreneurial intentions: Apply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5(3), 315-330.
- Shapero, A. (1984). *The entrepreneurial event, in C. A. Kent,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Lexington, MA: D. C. Heath, 21-40.